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우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윤정
경남정보대학교 사회복지과

The Impact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Youn-Jeong Choi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 관계에서 우울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기존의 개인적 차원 요인 뿐 아니라 사회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인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논의해 봄으로써 노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 삶의 만족도, 우울의 정도를 파악하고,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 연구패널 5차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4,222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인 우울 역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고 삶의 만족도는 높은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우울은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이고 우울 수준을 낮추거나 예방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주거 지원 정책과 여가활용지원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고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노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ive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to see how depression affects this relationship. This includes a new way of thinking about the causes of the elderly's life satisfaction, not only for individual factors, but also for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For this aim, we examine the degree of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and verify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between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utilized data obtained from the 5th version of the Korea Longitudinal Study on Aging 2014, and considered data from 4,222 elderly aged 65 and over. As a means of stud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may influence life satisfac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also affected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When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was high, depression was low and life satisfaction was high. When depression was low, life satisfaction was high. Second, depression had the mediation effect in which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affects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author suggests practical and political issues concerning social welfare to prevent and reduce depression and increase life satisfaction through improving the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First, policy measures should enhance social capital through housing support policies and leisure use support to enhance the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Second, the provision of services for the elder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based network to reduce depression should be promoted.

Keywords : Depression, Elderly,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Corresponding Author : Youn-Jeong Choi(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Tel: +82-51-320-2817 email: chy7945@daum.net

Received February 19, 2018

Revised(1st March 12, 2018, 2nd April 16, 2018, 3rd May 16, 2018)

Accepted June 1, 2018

Published June 30, 2018

1. 서론

최근 OECD 회원국 기대수명을 분석한 논문 결과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세계 1위에 올라서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될 전망이다[1].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의 삶은 시간의 양이라는 단순한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생애주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동시에 한국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기의 삶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년기의 삶의 만족은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특히 노인의 삶의 만족 정도는 노인 자신의 일생에 관한 행복도 및 생의 목표 달성과 직접 연결이 되며[2],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차원에서 중요한 개념이다[3].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 심리적 안녕감, 행복감 등과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4].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삶의 질을 일반건강 및 기능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삶의 만족, 자존감 등 4개 차원으로 설명하기도 하고[5], 삶의 질을 객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로 구분하고, 주관적 삶의 질을 삶의 만족, 주관적 안녕감, 행복, 자기 등의 용어로 정의하기도 한다[6].

노인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대다수의 많은 연구들은 노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거나 이들 요인간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검증해 본 것이 주를 이룬다[2][10][16][47-48].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노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및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 조사되었다[7-12]. 둘째, 건강 관련 요인들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10][13]와 일상생활 동작 등의 기능이 요인으로 확인되었다[7][8][14]. 셋째, 심리·정서적 요인에는 인지기능 및 우울 등과 같은 정서상태가 노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10][15-16]. 넷째, 사회활동(사회참여활동) 역시 노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확인되었다[10][17-20].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삶의 만족은 행복과 만족, 삶의 질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개인의 전체적인 삶에서 욕구가 충족될 때의 감정 상태이며, 행복의 상태일 뿐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서의 적응

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다[21]. 최근 이러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의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22-23]. 즉,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되는 ‘평가’가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상대적 우위’에 있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진 ‘지위(status) 경쟁’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말하는 ‘사회계층’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객관적, 절대적 조건이 그 자체로 의미 있다가보다, 조건에 대한 해석, 특히 사회 내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는가와 관련한 주관적 계층의식이 행복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24].

주관적 계층의식은 사회계층의식(social status consciousness) 또는 계층 정체성(status identification), 인지된 사회적 계층(perceived social status) 등 다양한 용어와 의미를 같이한다. 또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계층을 추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심리적인 계층의식이 사회계층의 분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계층의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25].

경제성장의 정체, 양극화의 심화, 사회이동성 저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사회계층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24], 이런 의미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하겠다. 따라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의 비중이 양적·질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이 때 노인의 삶의 만족과 주관적 계층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노인의 삶의 만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성공적인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건강 상태 만족도, 주관적 계층의식 등이 포함된다는 연구가 있었으나[26], 개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에 관련하여 인과성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주관적 계층의식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건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25].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수준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은 건강행동과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이다[27]. 건강행동이란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개인이 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건강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심리사회적 위험요인과 관련한 것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 위험도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자신의 계층적 위치를 낮게 인지할수록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내의 계층의식이 건강 행동을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친다[28]. 즉,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박탈감과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사회결속력을 약화시키게 된다[29]. 이러한 내용은 주로 정신건강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에서 정신병리가 많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용되어 왔으며, 이것은 주관적 건강 인식이나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Wilkinson은 이러한 낮은 주관적 계층의식은 부정적 감정을 생산하며 신경적 기제를 통해 더 불건강한 상태로 변환된다고 주장하였다[25]. 따라서 주관적 계층의식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며, 독거노인의 사회계층인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우울의 영향력은 이미 밝혀진 바 있고[10][15][32],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3]. 또한 우울은 노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에 매개효과가 있음도 밝혀졌다[10][13][32][34-35]. 그러나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대부분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의 상대적 위치인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해 봄으로써 노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향후 노인 삶의 만족에 관한 사회적 차원에 대한 논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질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노인의 우울은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이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우울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주관적 계층의식을 독립변수, 우울을 매개변수, 삶의 만족을 종속변수로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우울은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2.2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14년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 5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45세 이상의 준고령자 및 고령자들로서 앞으로 도래하게 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 4,22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독립변수: 주관적 계층의식

사회계층은 사회 내의 개인과 집단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그 구분과 접근법은 다양한데 주관적 계층의식은 관찰가능하고 분해가능한 객관적 조건 만으로 계층을 파악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포괄적이며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의 인식에 주목함으로써 계층의 의미나 실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다[21]. 주관적 계층의식은 패널자료에서 1은 상의상, 2는 상의하, 3은 중의상, 4는 중의하, 5는 하의상, 6은 하의하로 측정이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역문항을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하였다.

2.3.2 종속변수: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은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의 5개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각 문항은 0-100까지 10점 단위의 11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100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다. 삶의만족도의 Chronbach's α 값은 .810으로 높게 나타났다.

2.3.3 매개변수 : 우울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에서 우울은 Radloff[36]가 개발한 20문항의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ed Mood Scale) 중에서 10문항을 사용한 축약형 CESD-10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지난 일주일간 느낌, 태도, 감정, 행동의 변화에 관한 것으로 각 문항은 리커트척도(1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 2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 3은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 4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여 측정하였다. 우울의 Conbach's α 값은 .851로 높게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첫째,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AMOS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우리나라 전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패널데이터로 기존에 이미 요인구조가 확인된 변인이거나 관찰변수를 지표로 사용한 것이므로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 없이 1단계 접근법을 취하였다. 1단계 접근법과 2단계 접근법의 타당성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논쟁이 있어왔으나 그 우월성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이 연구자의 선택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10].

경로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비교적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명확한 해석기준이 확립된 적합도 지수 NFI, TLI, CFI, RMSEA를 선택하였다. 또한 모형 검증 후 매개효과와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hrout와 Blogger[37]가 제시한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으로 분석된 4,222명의 노인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1780명으로 42.2%, 여성이 2442명으로 57.8%를 차지하여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을 살펴본 결과 65-59세 응답자는 1101명으로 전체의 26.1%를 차지하였으며, 70-74세는 1094명으로 25.9%로 나타났다. 75-79세의 경우 998명으로 23.6%를 차지하였고, 80-84세는 625명으로 14.8%였고, 85세 이상 응답자는 404명으로 9.6%였다. 전기노인에 해당하는 65-74세 응답자가 전체의 52%였고,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이 전체의 48%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780	42.2
	Female	2,442	57.8
Age group	65-69	1,101	26.1
	70-74	1,094	25.9
	75-79	998	23.6
	80-84	625	14.8
	85-	404	9.6
	uneducated	1,022	24.2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513	35.8
	middle school	670	15.9
	high school	697	16.5
	college	30	.7
	University	260	6.2
	graduate school	30	.7
Religion	Unreligiousness	2,344	55.5
	Protestant	773	18.3
	Catholic	278	6.6
	Buddhism	803	19.0
	Won Buddhism	12	.3
	etc.	12	.3
marital condition	married state	2,813	66.6
	separation	23	.5
	divorce	54	1.3
	bereavement	1,319	31.2
	unmarried	13	.3
Residence type	house	2,923	69.2
	apartment	1,299	30.8
All		4,222	100

학력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전체의 60%로 비교적 낮은 학력 상태였으며, 중학교 졸업 이 15.9%,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6.5%, 대학교 졸업 이하가 6.9%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반 이상인 55.5%가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불교라고 응답한 사람이 19%, 개신교가 18.3%, 천주교라는 응답이 6.6%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결혼상태라는 응답이 전체의 66.6%였으며, 거주형태의 경우 주택에 거주한다는 응답이 69.2%로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응답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3.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2에서 제시되고 있다. 주관적 계층의 평균은 1.16($SD=0.37$), 삶의 만족도 평균은 241.56($SD=77.34$), 우울의 평균은 4.79($SD=3.21$)로 확인되었다. 구조방정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왜도는 절대값 3을 초과하면 안되고, 첨도는 10을 초과하면 변수에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 [17].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여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계층의식($r=.321$, $p<.01$), 우울($r=-.444$,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우울과 주관적 계층의식($r=-.091$, $p<.01$)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노인들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또한 모든 상관관계 계수의 절대값이 .50이하로 확인되었다. 이변량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85를 넘어서면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서 분석결과를 왜곡시키게 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에서는 이러한 높은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연구모형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울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설정한 경로 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연구모형 적합도는 $\chi^2=671.106$ 이고 $df=25$, $p=.000$ 으로 기각되었으나 이 값은 표본의 클 경우 기각되기 때

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해야 한다. $TLI=.940$, $CFI=.958$, $NFI=.957$, $RMSEA=.078$ 로 양호한 기준을 보이며, 모형은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에서 삶의 만족은 49.6%의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는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들을 살펴본 결과이다. 모형 적합도를 평가 한 후 주요 변수들 간에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186$, $p<.001$). 주관적 계층의식은 삶의 만족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beta=.506$, $p<.001$), 우울도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05$, $p<.010$). 즉, 주관적 계층의식→우울, 우울→삶의 만족, 주관적 계층의식→삶의 만족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를 통해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주관적계층의식→삶의 만족, 우울→삶의만족, 주관적계층의식→우울의 순이었다.

모형의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 동시에 주관적 계층의식 수준이 높으면 우울이 감소한다.

이상으로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은 다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통해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Bootstrap방법을 사용하였다. Bootstrap은 표본의 반복 추출을 통해 나타난 분포에서 유의수준 95%, 99%의 신뢰구간을 확인한 후 해당구간에 0값을 포함 유무를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38].

이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간접 효과가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울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 간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Min	Max	M	SD	Skew	Kur
Class consciousness	1.00	2.00	1.1592	.36594	1.863	1.472
Life satisfaction	.00	460.00	241.5623	77.33988	-.109	-.316
Depression	.00	10.00	4.7937	3.21051	.116	-1.281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Research Variables

	Life satisfaction	Class consciousness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1		
Class consciousness	.321**	1	
Depression	-.444**	-.091**	1

**p<.01

Table 4. Goodness of Fit Index of Path Model

Model	$\chi^2(p)$	df	TLI	NFI	CFI	RMSEA
	671.106 (.000)	25	.940	.957	.958	.078

Table 5. Path Coefficients of Structural Model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C.R.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Class consciousness → depression	-.045***	-.186	.004	-10.672	.034
Class consciousness → Life satisfaction	7.145***	.506	.206	34.739	.496
depression → Life satisfaction	-23.712***	-.405	1.219	-19.459	

***p<.001

Table 6. Analysis of indirect effect

Path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Class consciousness → depression	-.045(-.186)**		
depression → Life satisfaction	-23.712(-.405)**		
Class consciousness → Life satisfaction	8.207(.581)**	7.145(.506)**	1.062(.075)**

**p<.01

4. 결론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그 관계 속에서 우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2014년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AMO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모형 검증 후 매개효과의 유의

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1]와 사회계층이 삶의 질 지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는 연구결과[39],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주관적 계층의식과 생활만족 간의 연관성 및 인과성이 있다고 밝힌 연구[40]와 그 결과가 일치하였다.

둘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계층의식과 우울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41-42]와 연령과 성별을 통제 한 상태에서 독거노인의 사회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33].

셋째, 노인 우울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많은 선행연구[43-45]와 동일한 결과였다. 노인의 우울수준을 낮추거나 우울을 예방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노인의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를 통하여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에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은 우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었고,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우울은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 사이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울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우울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우울수준을 낮추는 것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 사이에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가 노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내에서의 개인의 상대적 위치인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함으로써 노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고, 이는 노인 삶의 만족에 관한 사회적 차원, 특히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논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첫째,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모색이 필요한데 이는 정책적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하는데 이는 실천적 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살펴보하고자 한다. 물론 주관적이라고 해도 계층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회계층의식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개인과 가구 그리고 사회 차원의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여 변동되는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계층의식의 형성·변동에 대한 영향요인의 인과관계 구조 역시 변화될 수 있다[39]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관적 계층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선행연구[21]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관적 계층의식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변수는 소득, 직업 등이지만 이러한 객관적 조건만으로는 삶의 만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년기는 생애주기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년기나 중년기에 비해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 요인인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여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이것이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전 생애 주기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노년기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소득과 직업 등은 주관적 계층의식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변수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기대수명과 빈곤율이 모두 세계 1위라는 점[1] 노년기의 계층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라고 하겠다. 따라서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고, 노년기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 주거가 삶의 질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이고 행복 증진의 측면에서 주택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21]. 노인은 노화로 인해 행동반경이 줄어들고 일상생활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애착,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중요한 변수가 바로 주거안정성이라 하겠다. 따라서 노인들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여기에는 청년기, 중·장년기의 접근과는 다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가활용의 매

개효과가 밝혀져 있다[40]. 따라서 노년기에 이용하고 만족하는 생활문화시설에 대해 조사하고, 노인의 삶의 만족 향상을 위해 관련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들은 본인이 주거하는 지역 편의시설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4].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심리적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음은 노인의 삶을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적 개입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의 우울과 정신건강에 관련한 많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개입은 대부분 노인 돌봄이나 방문요양서비스 위주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46]. 따라서 노인 우울 감소와 예방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정신건강 분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우울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이 이루어져왔으나 이는 대부분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치료적 개입이 위주였다. 사회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기법을 적용한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49]. 여기에는 지역사회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과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며, 우울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 뿐 아니라, 우울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 동료상담 프로그램, 비전문가 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50].

둘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고 개입하는 서비스에 노인 정신건강과 관련한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존의 서비스는 대부분 요양보호와 관련한 업무가 대다수 였는데, 이들 기관에 우울 예방과 우울 감소를 위한 다양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 및 여가 활동프로그램이 적극 제공되어야 한다. 동시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 서비스가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 주민들과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스스로 주변 사람들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뢰와 네트워

크 등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입증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논의를 다양화 하고, 이에 관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횡단 분석을 실시하여 종단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못했다는 점과 주관적 계층의식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의 인과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V. Kontis, J. E. Bennett, C.D. Mathers, G. Li, K. Foreman, M. Ezzati, "Future life expectancy in 35 industrialised countries: projections with a Bayesian model ensemble", *Lancet*, vol. 389, pp. 1323-35, 2017. DOI: [https://doi.org/10.1016/s0140-6736\(16\)32381-9](https://doi.org/10.1016/s0140-6736(16)32381-9)
- [2] M. S. Yoon, M. S.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f Elderly Wome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36, pp. 89-115, March, 2011.
- [3] M. D. Sparks, B. Painter,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Perceptions of Older Community-Dwelling Adult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vol. 23, pp. 47-53, 2004. DOI: <https://doi.org/10.3928/0098-9134-20040801-09>
- [4] J. H. Moon, D. H. Kim,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1, pp. 44-54, 2018.
- [5] Farquhar, "Elderly People's Definitions of Quality of Life",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41, no. 10, pp. 1439-1446, 1995. DOI: [https://doi.org/10.1016/0277-9536\(95\)00117-p](https://doi.org/10.1016/0277-9536(95)00117-p)
- [6] Efklides, M. Kalaitzidou, G. Chankin,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Greece: The Effect of demographic factors, emotional state and adaptation to aging", *European Psychologist*, vol. 8, no. 3, pp. 178-191, 2003. DOI: <https://doi.org/10.1027//1016-9040.8.3.178>
- [7] D. Kwon, J. Y. Cho,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0, no. 3, pp. 61-76, 2000.
- [8] S. Hur, "Life Satisfaction of Community Resident Elderly Person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4, summer, pp. 127-151, 2004.

- [9] R. Kim, "Factors of Successful Aging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Wome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8, no. a, pp. 33-48, 2008.
- [10] S. Gweon, "The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reported Health",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8, no. 5, pp. 995-1008, 2009.
DOI: <https://doi.org/10.5934/kjhe.2009.18.5.995>
- [11] S. Markides, W. Martin, "A Caus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vol. 34, no. 1, pp. 86-93, 1979.
DOI: <https://doi.org/10.1093/geronj/34.1.86>
- [12] M. S. Kim, J. W. Ko, "Study on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 An Integrative Approach",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6, pp. 246-259,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06.246>
- [13] D. M. Yeum, J. S. Jung, "Research o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life of Elderly: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ing",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30, no. 4, pp. 27-50, 2014.
- [14] R. I. Hwang, J. Y. Lim, Y. W. Lee, "A Comparis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ccording to their Cognitive impairment Leve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69, no. 5, pp. 622-631, 2009.
DOI: <https://doi.org/10.4040/jkan.2009.39.5.622>
- [15] M. J. Park,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Support Network Types on Life Satisfaction",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vol. 40, no. 1, pp. 207-233, 2012.
- [16] J. S. Lee, H. A. Kim, "The Impact Family Relationship on Life of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Wellness*, vol. 12, no. 2, pp. 27-36, 2017.
- [17] J. S. Hur, S. H. Cho, "A Caus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Persons: Focused on Medating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7, no. 1, pp. 674-691, 201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1.673>
- [18] E. E. Yim, B. J. Koo, S. H. Lim,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Networkin on Life Satisfaction on the Rural Elderly People: Focusing on Mediator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25, no. 2, pp. 567-590, 2014.
DOI: <https://doi.org/10.16881/jss.2014.04.25.2.567>
- [19] K. M. Nam, "The Relationship between Older People's Activitie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Self Esteem as Mediato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30, Spring, pp. 303-328, 2006.
- [20] R. Jenkins, M. Pienta, L. Horgas, "Activit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Research on Aging*, vol. 24, no. 1, pp. 124-149, 2002.
DOI: <https://doi.org/10.1177/0164027503024001008>
- [21] Y. K. Lee, S. J. Lee, "A Study of the Effect of Social Status on Happiness: A Focus o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55, no. 1, pp. 1-30, 2017.
- [22] E. Diener, M. E. Seligman,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vol. 5, no. 1, pp. 1-31, 2004.
DOI: <https://doi.org/10.1111/j.0963-7214.2004.00501001.x>
- [23] R. Layard, *Happiness: Lesson from a New Science*.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05.
- [24] Y. K. Lee, S. J. Lee, "A Study of the Effect of Social Status on Happiness: A Focus o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55, no. 1, pp. 1-30, 2017.
- [25] J. Y. Hwang, S. K. Chung,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and Its Influence on Alcohol Problems",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vol. 44, no. 3, pp. 269-298, 2016.
- [26] M .H. Kim, "A Study of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Successful Aging among Korean Elderly Group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2, no. 2, pp. 697-715, 2010.
- [27] M. S. Lee, "Health Inequalities Among Korean Adult: Socioeconomic Status and Residential Area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39, no. 6, 2005.
- [28] R. Wilkinson, "Health, Hierarchy, and social anxiety",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 896, Vo. 1, pp. 48-63, 1999.
DOI: <https://doi.org/10.1111/j.1749-6632.1999.tb08104.x>
- [29] M. Marmot, "Status syndrome: A challenge to medicine", *JAMA*, vol. 295, no. 5, pp. 1304-1307, 2006.
DOI: <https://doi.org/10.1001/jama.295.11.1304>
- [30] J. S. House, J. M. Lepkowski, A. M. Kinney, R.P. Mero, R. C. Kessle, A. R. Herzog,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Aging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5, September, pp. 213-234, 1994.
DOI: <https://doi.org/10.2307/2137277>
- [31] W. C. Jeong, M. O. Tae, "Study on Moderating Effect of Subjective Health State of Elder Who Lives Alone on the Influence of Those People's Stratum Consciousness on Their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7, no. 12, pp. 426-436, 2017.
- [32] J. S. Lee, H. A. Kim, "The Impact Family Relationship on Life of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Wellness*, vol. 12, no. 2, pp. 27-36, 2017.
- [33] W. C. Jeong, M. O. Tae, "Study on Moderating Effect of Subjective Health State of Elder Who Lives Alone on the Influence of Those People's Stratum Consciousness on Their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7, no. 12, pp. 426-436, 2017.
- [34] J. H. Yeom, "The Effect of Religion on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older Adults: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Social Thoughts and Culture*, vol. 19, no. 3, pp. 285-317, 2016.
DOI: <https://doi.org/10.17207/jstc.2016.09.19.3.285>
- [35] J. H. Lee, G. Y. Jo, "The Influence of economic Capability and Physical health status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19, pp. 151-176, 2017.
- [36] L. S. Radloff. "The CES-D Scale: A self-report

-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1, no. 3, 1977.
DOI: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37] P. E. Shrout, N. Bolger,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vol. 7, no. 4, pp. 422-445, 2002.
DOI: <https://doi.org/10.1037/1082-989x.7.4.422>
- [38] J. L. Arbuckle, *Amos 18 user's guide*, Grawfordville, FL: Amos Development Corporation, 2007.
- [39] B. H. Lee, J. H. Yoon, “The Change of Social Status Consciousness”, *Economy and Society*, pp. 111-140, 2006. 6.
- [40] I. J. Yoon, S. D. Kim, “The Impact of Socioeconomic Status and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on Life Satisfaction - With a Focus on Mediating Effects of High-class Leisure Activity”,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vol. 21, no. 2, pp. 153-185, 2008.
- [41] S. C. Segerstrom, S. E. Taylor, M. E. Kemerry, J. L. Fahey, “Optimism is associated with mood, coping, and immune change in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4, no. 8, pp. 663-673, 1998.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4.6.1646>
- [42] N. E. Adler, “Health disparities through Psychological lens”, *American Psychologist*, vol. 64, no. 8, pp. 663-673, 2009.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64.8.663>
- [43] M. S.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Death Anxie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f Elder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49, pp. 241-266, 2010.
- [44] O. S. Shim, “Moderating Effects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Life-satisfaction of the elderly economic activity”,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 17, pp. 161-180, 2015.
- [45] H. S. Lee, H. S. Nam, “The Effect of Daily Living Activities, Depression, Sdlf-respect, and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of the Rural Elderly on their Life Satisfaction-Casd Study on the Yeosu Country”,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ol. 17, no. 4, pp. 957-984, 2010.
- [46] Y. H. Chon, C. N. Kim, “A Study on Home Support Service for Order People in terms of Necessity and Establishment of Roles: Focusing on the Perspectives of the Service Users and Providers in Gyeonggi provinc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1, no. 1, pp. 275-304, 2016.
- [47] H. G. Kim, “The Effect of the Stress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n Urban Areas on the Quality of Life: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2, pp. 443-451,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2.443>
- [48] H. J. Lee, “The Impact of Isolation and Loneliness on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42, pp. 157-177, 2012.
- DOI: <https://doi.org/10.15300/jcw.2012.09.42.157>
- [49] M. P. Johnson, “Community-Based Operations Research: Introduction, Theory, and Applications”, Michael P. Johnson(ed). *Community-Based Operations Research: Decision Modeling for Local Impact and Diverse Populations*, pp. 3-36, 2011.
DOI: https://doi.org/10.1007/978-1-4614-0806-2_1
- [50] E. J. Kim, S. P. Yook, “Study on the Multilevel Effects of Integrated Crisis Intervention Model for the Prevention of Elderly Suicide: Focusing on Suicidal Ideation and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7, no. 1, pp. 173-200.

최 윤 정(Youn-Jeong Choi)

[정회원]



- 2003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0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정신건강